



Original Article

Maternal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Breast Feeding Practice

Yeo, Jung Hee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산모의 사회심리적 요인

여 정 희¹⁾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prevalence of breast feeding and maternal psychosocial predictors affecting the breast feeding practice at six months postpartum. **Method:** One hundred and sixty one mothers at six months postpartum were conveniently recruited in two public health center in Jeju-city. Subjects completed a well-structured questionnaire regarding the feeding types of the child, maternal self-esteem,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EPDS), husband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scal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χ^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ogistic regression. **Result:** The prevalence of breast feeding at six months postpartum was 29.9%. Predictors of breast feeding practice identified b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clude first feeding type after delivery, marital adjustment, readiness for maternal role and work state.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breast feeding practice was lower than WHO desired at six months postpartum. Therefore, the findings support the need for breast feeding education including interventions focused on improving readiness for maternal role

and marital adjustment.

Key words : Breast feeding, Self-concept, Postpartum depression, Support, Marital relationship

서 론

성공적인 모유수유는 엄마와 신생아, 지지적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Shawky & Abalkhail, 2003). 최근 연구(Hwang, Chung, Kang, & Suh, 2006; Lee, Chung, Ahn, Moon, & Park, 2003; Park, Kim, Lee, & Kim, 2000)에서 출생아 체중, 분만형태, 모유수유 문제수, 첫 모유수유 만족도, 취업상태,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 전 모유수유 경험 등이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려는 의지나 동기,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며(Kim, 1991), 이 요인들의 증진을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중재로 모유수유 교육을 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투고일: 2007. 5. 2 1차심사완료일: 2007. 5. 10 2차심사완료일: 2007. 8. 23 최종심사완료일: 2007. 9. 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eo, J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66 Jejudaehakno, Jeju-City 690-756, Korea
Tel: 82-64-754-3883 Fax: 82-64-702-2686 E-mail: jheeyeo@cheju.ac.kr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며, 다양한 요인이 파악되고 있으나 모유수유 실천과 산모의 사회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오래전 Jelliffe와 Jelliffe(1977)는 분만 후 놀람이나 슬픔, 두려움은 흘러내림 반사를 방해하여 모유부족의 원인이 되거나 모유수유 실패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 한 바 있었다. 분만 후 산모의 약 50-80%정도가 심각성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산후우울을 경험한다고 보면 이로 인한 모유수유 중단은 상당할 것이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산후우울은 모유수유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Falceto, Giugliano, & Fernandes, 2004), 7주의 엄마의 기분은 6개월의 모유수유 실천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Galler, Harrison, Ramsey, Chawla, & Taylor, 2006). 또한 저하된 모성자존감(Pyszczyński & Greenberg, 1987)과 낮은 사회적 지지(Brown, Bifulco, Veiel, & Andrews, 1990)는 산후우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복합적 요인은 모성 역할의 획득을 방해하여 결국 영아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실 분만 후 산모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다. 그 중 가족은 모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에게 주요한 사회적 자원이며 지지체계이다(Ahn & Kim, 2003). 특히 배우자 지지는 모성의 역할 만족도를 구성하며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를 결정하고(Oh, 2001), 모유수유 실천요인으로 확인되었다(Dennis, 2002). 또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은 산후우울 발생에 관여할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는 조건인(Lee, 2006) 결혼 적응도를 감소시켜(Graham, Fischer, Crawford, Fitzpatrick, & Bina, 2000) 영아양육에 부정적 영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위에 기술한 4가지 사회심리적 요인은 모성 역할 능력이나 적응과 연관되어 영아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영아양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유수유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여러 단체에서 권유하는 모유수유 기간인 출산 후 6개월 산모를 대상으로 수유형태 및 엄마의 사회심리적 요인인 산후우울, 모성자존감, 배우자 지지, 결혼 적응도와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중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출산 후 6개월 산모의 수유형태와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수유형태를 조사한다.
-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일반적 특성 및 분만, 영

아, 수유관련 특성을 비교한다.

-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와 결혼적응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 모유수유 실천과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 적응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1) 모유수유군

모유수유군은 수유형태가 모유만인 대상자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6개월의 수유형태가 모유이거나 혼합유인 대상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에 완전 모유수유만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은 혼합유 대상자는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하는 경우로 모유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데 의미를 둔 결정이었다.

2) 비 모유수유군

출산 후 6개월의 수유형태가 인공유인 대상자를 말한다.

3) 모성자존감

여성 스스로 자신을 어머니로서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Han & Bang, 1999). 본 연구에서는 Shea와 Tronick의 모성자가보고도구(Maternal self-report inventory)를 Han과 Bang(1999)이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산후우울

출산 후 여성에게 생기는 심각한 감정의 변화로 기분변화에 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근심, 침울함, 실패감,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를 말한다(Beck, 1995). 본 연구에서는 Cox, Holden과 Sagovsky(1987)이 개발한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s(EPDS)의 국문판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5) 배우자 지지

부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인정된 사랑과 지지의 교환이라는 주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Bai, 1996). 본 연구에서는 Taylor의 신체적 지지와 Lee의 정신적 지지 도구를 Bai(1996)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6) 결혼적응도

결혼 생활 전반에 대한 선호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일종의

태도를 의미하며(Cho, 1988), 본 연구에서는 Spanier가 개발한 결혼 적응척도(Marital adjustment scale)를 Cho(1988)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6개월 산모의 수유형태와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J시 소재 2곳의 보건소에 등록된 산모의 기록지를 토대로 출산 후 6개월 전후 1주 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산전에 보건소에서 4주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1회 참여하였으며, 분만 후 모유수유를 계획한 자이었다.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첫째, 모아 모두 임신 및 산후 합병증이나 질병이 없었던 자 둘째, 모아 모두 현재 건강한 자 셋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 이었다. 자료수집은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3명의 연구보조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연구보조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의 산모 기록지를 통해 생후 6개월(± 1주)이 되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서면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였다. 그 후 가정방문 직전 전화를 이용하여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일수는 25회이었다. 조사된 설문지는 186부 이었으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161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모성자존감

모성자존감은 Shea와 Tronick의 모성자가보고도구(Maternal self-report inventory)를 Han과 Bang(1999)이 번안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6문항),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5문항), 아기돌보기 능력(6문항),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4문항),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4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평점방법은 Likert 5점 평정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8 이었다.

2) 산후우울

산후우울의 측정은 Cox 등(1987)에 의해 개발된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s(EPDS)의 국문판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산후우울이 있는 여성을 식별하기 위한 서술적 자가 평정 측정도구로 총 10문항이다. 평점방법은 Likert 4점 평정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6 이었다.

3)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Taylor의 신체적 지지와 Lee의 정신적 지지 도구를 Bai (199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배우자의 신체적 지지 11문항과 정신적 지지 7문항으로 총 18문항이며, Likert 4점 평정척도로 측정되었고, 최저 18점에서 최고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0 이었다.

4) 결혼적응도

결혼적응도는 Spanier가 개발한 결혼 적응척도(Marital adjustment scale)를 Cho(1988)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3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결혼적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2 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분만, 영아, 수유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수유형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3)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4)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일반적 특성 및 분만, 영아, 수유관련 특성,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의 차이는 χ^2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 5) 모유수유 실천과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6) 모유수유 실천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수유형태

연구 대상자 중 모유수유는 29.2%(47명), 혼합유는 28.6%(46명), 인공유는 42.2%(68명)이었다.

2.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 간의 여러 특성 비교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일반적 특성 및 분만, 영

아, 수유관련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35세 미만이 두 군 모두에서 80%이상으로 유사하였고, 학력은 두 군 모두 전문대 이상이 68%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직업이 있는 모유수유군은 38.7%, 비 모유수유군은 5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6.38, p<.05$). 가족형태는 두 군 모두 핵가족의 형태가 많았으며,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모유수유군은 53.8%였고, 비 모유수유군은 35.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chi^2=4.47, p<.05$). 자녀수는 한명인 모유수유군은 50.5%, 비 모유수유군은 4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Difference of various characteristics between breast feeding and non breast feeding group (N=161)

Characteristic	Breast feeding (n=93)	Non breast feeding (n=68)	χ^2 or t(p)
	n(%)	n(%)	
Age (y)			
Under 35	78(83.9)	56(82.4)	.04(.84)
35 and Over	15(16.1)	12(17.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or lower	30(32.3)	22(32.4)	.00(.99)
Junior college or higher	63(67.7)	46(67.6)	
Work state			
No working	57(61.3)	28(41.2)	6.38(.01)
Working	36(38.7)	40(58.8)	
Family type			
Nuclear	75(8.6)	51(75.0)	
Extended	18(19.4)	17(25.0)	.48(.49)
Monthly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50(53.8)	24(35.8)	4.47(.04)
2,000 and Over	43(46.2)	43(64.2)	
Number of children			
One	47(50.5)	30(44.1)	.76(.38)
Two and over	46(49.5)	38(55.9)	
Delivery method			
Normal delivery	72(77.4)	45(66.2)	2.50(.11)
Cesarean section	21(22.6)	23(33.8)	
Wanted pregnancy			
Yes	73(78.5)	52(76.5)	.16(.70)
No	20(21.5)	16(23.5)	
Birthweight(kg)*	3.26 ± .41	3.28 ± .52	.17(.86)
Sex			
Male	42(45.2)	35(51.5)	.75(.39)
Female	51(54.8)	33(48.5)	
Order in family			
1st	47(50.5)	30(44.1)	
2nd	30(32.3)	30(44.1)	2.60(.27)
3rd	16(17.2)	8(11.8)	
First feeding type after delivery			
Breast milk feeding	53(57.0)	19(27.9)	14.85(.00)
Artificial feeding	40(43.0)	49(72.1)	
Previous breast feeding experience			
Failure or no experience	43(46.2)	48(70.6)	9.79(.00)
Success	50(53.8)	20(29.4)	

* M±SD

<Table 2> Difference of maternal self-esteem, postpartum depression, husband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between breast feeding and non breast feeding group (N=161)

Variable	Breast feeding (n=93)	Non breast feeding (n=68)	t(p)
	M±SD	M±SD	
Maternal self-esteem	3.85± .42	3.73± .47	-1.67(.10)
Self-confidence for maternal role	4.04± .68	3.93± .72	-.94(.35)
General ability as a mother	3.95± .50	3.73± .66	-2.31(.02)
Infant care ability	3.25± .75	3.37± .77	1.00(.32)
Readiness for maternal role	4.02± .45	3.78± .48	-3.18(.00)
Perception for pregnancy/delivery	3.95± .79	3.78± .86	-1.25(.22)
Postpartum depression	6.27±4.11	6.85±4.28	.86(.39)
Husband support	3.10± .47	2.97± .54	-1.64(.10)
Psycho support	3.29± .48	3.10± .53	-2.26(.03)
Physical support	2.93± .61	2.84± .73	-.76(.45)
Marital adjustment	4.03± .50	3.72± .74	-3.15(.00)

대상자의 분만관련 특성 중 분만방법은 두 군 모두 정상분만이 제왕절개술보다 높은 비율이었으나 두 군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임신희망여부에서도 원하는 임신의 비율이 두 군에서 유사하였다.

영아관련 특성 중 출생시 체중은 두 군 모두 평균 3.3Kg으로 유사하였으며, 성별 및 출생순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수유관련 특성 중 분만 후 첫 수유형태를 모유로 수유한 비율은 모유수유군은 57.0%, 비 모유수유군은 27.9%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chi^2=14.85, p < .001$), 이전 모유수유 경험에서 성공한 경우는 모유수유군은 53.8%, 비 모유수유군은 29.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9.79, p < .001$).

3.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의 차이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모성자존감 및 5개 하위영역(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아기돌보기 능력,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 임신/분만/출산에 대한 감정),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및 2개 하위영역(정신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결혼적응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이들 중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엄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t=-2.31, p < .05$),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t=-3.18, p < .001$), 정신적 지지($t=-2.26, p < .05$), 결혼적응도($t=-3.15, p < .001$)이었다. 즉 모유수유를 하는 대상자는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이 뛰어나고,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며,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가 높고, 결혼적응도가 높았다.

4. 모유수유 실천과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와의 상관관계

모유수유 실천과 모성자존감,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모유수유 실천은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r = .19$),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r = .25$), 정신적 지지($r = .18$), 결혼적응도($r = .24$)에서 낮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로서의 일반적인 능력이 좋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정신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잘 실천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breast feeding and maternal self-esteem, postpartum depression, husband support, marital adjustment(N=161)

Variable	Breast feeding*
	r(p)
Maternal self-esteem	.13(.10)
Self-confidence for maternal role	.08(.35)
General ability as a mother	.19(.02)
Infant care ability	-.08(.32)
Readiness for maternal role	.25(.00)
Perception for pregnancy/delivery	.10(.22)
Postpartum depression	-.06(.43)
Husband support	.13(.10)
Psycho support	.18(.03)
Physical support	.06(.44)
Marital adjustment	.24(.00)

Note *=dummy coded, 1: breast feeding group

5. 모유수유 실천 예측요인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전진 단계 방법(Wald)를 사용한 결과 <Table 4>와 같다. 여기에 투입된 변수는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 간의 여러 특성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직업(무:0, 유:1), 수입(200만원 미만:0, 이

<Table 4> Predictors for practicing breast feeding

Variable	B	SE	Wald	p	Odds ratio	95% CI
First feeding type after delivery*	2.10	.46	20.82	.00	8.17	3.31-20.13
Work state*	-1.08	.42	6.80	.01	.34	.15-.76
Readiness for maternal role	1.28	.45	8.08	.00	3.58	1.49-8.63
Marital adjustment	1.15	.40	8.37	.00	3.16	1.45-6.90

Note *=dummy coded, 1: feeding first breast milk after delivery, having job

상:1), 분만 후 첫 수유형태(인공유 또는 혼합유:0, 모유:1), 이전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성공여부(실패이거나 없는 경우:0, 성공:1)와 모성자존감 및 5개 하위영역,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및 2개 하위영역, 결혼적응도이었다.

분석결과 4단계 전진방법에서 4개의 예측변수가 첨가된 모델의 카이제곱이 47.09, 자유도 4, $p < .001$ 로 나타나 예측 모형은 유의하였으며, 이 때 종속변수의 설명력은 28.6%(Cox & Snell $R^2 = .286$)이었다. 형성된 모형의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분류의 정확도는 모유수유하는 사람의 80.5%가 ‘한다’ 범주에 분류되었고, 모유수유를 안하는 사람 69.8%가 ‘안한다’ 범주에 분류되어 평균 예측치는 75.7%이었다.

위 회귀모델에 삽입한 15개 변수 중 4개의 변수가 유의하였고, 해당변수는 분만 후 첫 수유형태(Wald=20.82, $p < .001$), 결혼적응도(Wald=8.37, $p < .00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Wald=8.08, $p < .001$), 그리고 직업(Wald=6.80, $p < .05$)이었다. 즉 분만 후 첫 수유형태가 모유일 때,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가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 때 모유수유를 잘 실천하였다. 교차비(Odds Ratio)를 이용해 이를 설명하면, 모유수유 실천은 분만 후 첫 수유형태가 모유일 때 모유가 아닌 경우보다 8.17배 높았고,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3.16배 높았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가 높을수록 낮은 경우보다 3.58배 높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34배 낮았다.

논 의

본 연구의 출산 후 6개월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율은 29.9%로 나타났다. 이는 Hwang 등(2006)의 전국적 조사에서 나타난 17.7%보다는 높은 비율이었으나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0)의 목표인 50%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모유수유 실천율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직업과 수입이었다. 직업에 따른 두 군간의 차이는 여러 연구결과(Oh, Park, & Im, 1994; Park et al., 2000)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특성은 모유수유 실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어 모유수유의 주된 장애요인 중 하나로 직장복귀를

보고한 Stewart-Knox, Gardiner와 Wright(2003)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정부와 여러 단체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들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빠른 시간내 효과가 발생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따라 두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모유수유군의 200만원 이상 대상자는 46.2%이었으나 비 모유수유군은 64.2%로 수입이 많은 경우 모유수유를 적게 하였다. 이 결과는 Lee 등(2003)의 연구와 동일하였으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은 모유수유 기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Leung, Tam, Hung, Fok와 Wong(2003)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유관련 특성 2가지 모두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만 후 첫 수유형태를 모유로 한 경우는 모유수유군이 57.0%, 비 모유수유군이 27.9%로 나타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이 특성은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Li, Lan, Hoa와 Ushijima(2002)는 모성병동에서 모유수유 대용물 보충이 모유수유를 중단할 위험가능성이 4.30배 높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최근 들어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분만 후 병원에서의 수유형태가 인공유에서 모유로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본 연구의 경우 분만 후 첫 수유형태 중 인공유가 55.3%로 모유수유 중단의 위험에 놓인 대상자가 전체에 반 이상이었다. 따라서 의료인은 출산 후 신생아의 첫 수유형태가 모유수유 지속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분만 후 수유형태 결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군 중 성공적인 모유수유 경험을 한 경우는 53.8%, 비 모유수유군 29.4%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여러 연구(Oh et al., 1994; Park et al., 2000)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즉 이전에 모유수유에 대해 성공한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는 그렇지 않거나 모유수유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보다 모유수유 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모유수유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초산모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모성자존감은 모유수유 실천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자존감은 모성역할의 중심인 모유수유 활동으로 인한 모아간의 조기 접촉을 통해 모아상호작용이 향상되면서

형성되는 것이나(Preski & Walker, 1997)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도 아니었다. 이는 Falceto 등(2004)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었다. 초산모의 모성자존감과 모아애착간의 높은 상관관계는(Han, 2001) 모아간의 친밀한 정서적 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 증진과 더불어 모유수유 실천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모성자존감의 5개 하부영역과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성에서는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과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가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고, 모유수유 실천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중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는 모유수유 실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성자존감과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으며, 주제어에 모성자존감이나 그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수 명칭만 동일할 뿐 내용면에서는 전혀 달랐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모유수유 실천과 어머니로서의 일반적 능력,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의 관련성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배우자 지지와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배우자 지지는 영아 출생시 나타나는 초산모의 산후우울을 감소시키며,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Cho, 1991) 영아양육에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으나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성은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 지지 중 정신적 지지는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 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모유수유 실천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 신체적보다 정신적 지지가 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남편의 의사와 격려는 수유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남편이 모유수유가 모아에게 가장 좋은 영양법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아내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고한 Sweeney(1987)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모유수유 시도나 지속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적응도는 모유수유군과 비 모유수유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모유수유를 잘 하였으며, 모유수유 실천 예측요인이었다. 따라서 결혼적응도는 모유수유 실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변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물론, 결혼적응도에 대한

연구 또한 흔치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려웠다. 결혼적응의 개념은 많은 연구에서 결혼 만족과 혼용되어 사용하나, 광범위한 적용을 해야 하는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배우자가 있는 반면, 약간의 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과 만족은 구별된다(Lee, 1990). 본 연구에서 결혼 만족의 개념이 아닌 결혼적응의 개념을 변수로 이용한 이유는 모유수유를 하나의 부부간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해 적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의도이었다. 따라서 부부간의 결혼적응도 향상은 모유수유율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결혼적응도 향상을 위한 중재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출산 6개월 산모의 수유형태와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로, 그 결과 분만 후 첫 수유형태, 결혼적응도,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준비도 및 직업이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전 예측변수로 선정한 모성자존감과 산후우울, 배우자 지지, 결혼적응도 중 모성자존감의 하나의 하위 영역과 결혼적응도가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 파악된 여러 요인과 함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예측요인을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중재가 개발되기 기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계 여러 단계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시기인 출산 후 6개월 산모를 대상으로 함이며, 또한 이 시기의 모유수유 실천 예측 요인이 파악되어 모유수유 기간을 출산 후 6개월까지 연장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모유수유 실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좀 더 향상된 중재 개발 가능성에 또한 의의를 둔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해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모유수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산모, 출산 후 다양한 시기의 산모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 임상에서 모유수유 지속성의 여부를 위한 조사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Y. M., & Kim, J. H. (2003). Comparison of maternal self-esteem, postpartal depression, and family function in

- mothers of normal and of low birth-weight infants. *J Korean Acad Nurs*, 33(5), 580-590.
- Bai, J. E. (1996). *Construction of a postpartum depression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Beck, C. T. (1995).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on maternal-infant interaction: A meta-analysis. *Nurs Res*, 44, 298-304.
- Brown, G. W., Bifulco, A., Veiel, H. O., & Andrews, B. (1990). Self-esteem and depression: II Social correlates of self-esteem. *Soc Psychiatry Psychiatr Epidemiol*, 25, 222-234.
- Cho, Y. S. (1988). *The effect of the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the prevention of postpartum depression: Using on experimental teaching interven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Y. S. (1991). The effect of husband's emotional support on postpartum mother's self-esteem and depression. *Nurs Sc*, 3, 70-91.
- Cox, J. L., Holden, J. M., & Sagovsky, R. (1987). Detection of postnatal depression: Development of the 10-item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Br J Psychiatry*, 150, 782-786.
- Dennis, C. L. (2002). Breastfeeding initiation and duration: A 1990-2000 literature review.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31(1), 12-32.
- Faleceto, O. G., Giugliano, E. R. J., & Fernandes, C. L. C. (2004). Influence of parental mental health on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A case-control study. *J Am Broad Fam Pract*, 17, 173-183.
- Galler, J. R., Harrison, R. H., Ramsey, F., Chawla, S., & Taylor, J. (2006). Postpartum feeding attitudes, maternal depression, and breastfeeding in Barbados. *Infant Behav Dev*, 29, 189-203.
- Graham, C. W., Fischer, J. L., Crawford, D., Fitzpatrick, J., & Bina, K. (2000). Parental status, social support, and marital adjustment. *J Fam Issues*, 21(7), 888-905.
- Han, K. E. (2001).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lf-esteem and maternal sensitivity with mother-to-infant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Han, K. J., & Bang, K. S. (1999). Confirmatory analysis of maternal self-report inventory. *Korean Parent-Child Health J*, 2, 64-82.
- Hwang, W. J., Chung, W. J., Kang, D. R., & Suh, M. H. (2006). Factors affecting breastfeeding rate and duration. *J Prev Med Public Health*, 39(1), 74-80.
- Jelliffe, D. B., & Jelliffe, E. F. (1977). Breast is best, modern meaning. *N Engl J Med*, 297, 250-315.
- Kim, H. S. (1991). *Study on the factors of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for the primipara who attempted breast feed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S. (2006). *Subjective meanings of marital adjustment for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M. S. (1990). A review and evaluation on the marital satisfaction researches in Korea. *J of Human Science*, 10(1), 27-71.
- Lee, S. O., Chung, E. S., Ahn, S. H., Moon, G. N., & Park, N. 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J Korean Acad Child Nurs*, 9(4), 368-375.
- Leung, T. F., Tam, W. H., Hung, E. C., Fok, T. F., & Wong, G. W. K. (2003). Sociodemographic and atopic factors affecting breastfeeding. *Pediatr Child Health*, 39(6), 460-464.
- Li, L., Lan, D. T., Hoa, N. T., & Ushijima, H. (2002). Prevalence of breast-feeding and its correlates in Ho Chi Minh City. *Pediatr Int*, 44, 47-54.
- Oh, E. K. (2001). *A research how parenting behavior by the working mothers, support of spouse and the degree of professional satisfaction affect the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Oh, H. E., Park, N. J., & Im, E. S. (1994). An analysis study measuring factors interrupting in breast-feeding.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4(1), 68-79.
- Park, C. M., Kim, K. C., Lee, J. R., & Kim, H. J. (2000).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breast-feeding - Centering Sungju-gun, Kyongbuk -. *J Korean Society Health Education Promotion*, 17(1), 1-17.
- Preski, S., & Walker, L. O. (1997). Contributions of maternal identity and lifestyle to young children's adjustment. *Res Nurs Health*, 20(2), 107-117.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7). Self-regulation, perseveration, and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A self-awareness theory of reactive depression. *Psychol Bull*, 135, 122-138.
- Shawky, S., & Abalkhail, B. A. (2003). Matern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uration of breast feeding in Jeddah, Saudi Arabia. *Paediatr perinat Epidemiol*, 17, 91-96.
- Stewart-Knox, Gardiner, K., & Wright, M. (2003). What is the problem with breast-feeding? A qualitative analysis of infant feeding perceptions. *J Hum Nutr Dietet*, 16, 265-273.
- Sweeney, M. A. (1987). The health belief model as an explanation for breast feeding practices in a Hispanic population. *ANS*, 9(4), 35-50.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Healthy People 2010: Vol II. Objectives for Improving Health (part B). from <http://www.health.gov/healthpeople/document/tableofcontents.htm#Volume2>.